

세례가 자동적으로 사람을 중생시킨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단순한 세례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전 1:17).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거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특별한 사귐을 갖게 된다.)

### 3) 성경적 교회권정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시일 것이다. 어떤 교파에는 성경에 있는 개체의 회중과 그 설교자가 있지만 대개 교회권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구약도 함께)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릇된 교훈은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용납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릇된 교훈은 자유주의이다(해방신학, 민중신학 등). 자유주의를 용납하는 교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성경적 교회권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삼고 우리의 교회의 사귐은 오직 그분에게만 기초를 두고 있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행 4:12; 갈 1장; 고후 11:13-15, 그릇된 사도들은 그릇된 예수를 전파한다(4절))

### 3. 역사상 그리고 오늘의 교회

(복음은 종교개혁 때에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이 재발견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sola fide),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sola gratia)이다.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 자유주의, 이단들(몰몬, 여호와의 증인 등)과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참된 교회는 개혁되며 끊임없이 개혁되고 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주, 무오한 성경,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시다.)

##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

허 순 길 교수

(성경은 “그(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골 1:18).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머리”란 바로 권위의 대명사로 이해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요 왕이시다. 그가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행 20:28),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러기에 그만이 교회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적 권위를 가진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엡 1:23). 이 사실은 온 몸의 건전한 발육이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처럼 교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보장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상의 진리는 교회의 지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이

다. 그러나 이 전리가 한국 교회에는 너무도 피상적이요, 교회생활에 정착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교회에서는 인간의 교권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권이 외면을 당하고 있고, 인간의 자만스런 큰 소리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다. 이래서야 교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분명히 개혁이 되고 개신이 되어야만 한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머리요 왕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의 뜻에 절대 순종의 태도를 나타낼 때에야 밝은 미래는 열릴 것이다.)

### 진지한 설교 강단

( 말씀은 주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제일 귀중한 은혜의 수단이다. 교회는 복음 설교의 수단을 통해 태어나고 성장해 간다.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인간의 봉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전도자는 주님의 사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한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강단이 그렇게 진지하고 두려운 자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복음이 진지하게 전해져야 할 강단이 정치, 사회 운동을 자극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도덕을 논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경험담, 유모어를 늘어놓는 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주님의 말씀의 봉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한다. 설교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길을 선언하는 진지한 주님의 구원의 수단이 아닌가? (강단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진지한 곳이 되어야 한다.)

### 은혜 수단의 성실한 집행

주께서는 그의 교회에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외에 성례를 세워 주셨다. 세례와 성찬은 주께서 직접 세워 주신 성례이다. 이 성례가 구원에 절대 필요로 하는 믿지 않는다. 주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고 이런 가련적인 은혜의 수단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자는 그가 세우신 성례를 성실히 배풀고 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것에 너무 등한하다. 이는 로마교회의 성례주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작용한 것인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년 동안 한두 번의 세례식, 성찬식을 보게 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족이며, 교회를 향한 그의 은혜로운 배려를 경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거스틴은 성례를 가련적인 말씀 (visible Word)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교회는, 말씀 외에 그가 세우신 다른 은혜의 수단도 귀중히 여겨야 한다. 가능한 한 자주,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성례를 집행함으로 주께서 이를 통해 배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사를 교회가 누리며 즐길 수 있게 해야만 할 것이다.)

### 종이 취해야 할 자세

성경에는 목사의 직책을 상징하는 여러 명칭들이 있다. 감독, 목자, 사신, 교사, 종, 청지기 등. 이 명칭들 가운데 목사의 직책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종”이라 하겠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여 이르기를 “예수를 위한 너희의 종”이라고 했다. 목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아가 그를 위한 교회의 종이다. 그런고로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봉사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목사가 성실한 종으로 등장할 때, 목사로서의 참된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 아니, 주께서 성실한 종에게 권위를 입혀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종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교회의 주인으로 등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옛날 자신에게 “하나님의 종의 종”(servus servorum Dei)이라는 겸허한 이름을 부친 한 로마 감독이 엄청난 로마 교권 체제의 터를 놓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많은 시련과 들리는 잡음은 목사의 종의 의식의 결핍과 잘못된 주인 의식에 기인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목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종된 것을 기뻐하고 종으로 성실히 섬기는 자세만을 취할 때 주님은 그를 불드시고 그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다.)

### 명예직 아닌 장로직

장로 직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벌써 있었고(행 11:30), 바울이 소아시아의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해 세웠었다(행 14:23). 주님은 그의 교회의 봉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일찍부터 세우신 것이다. 성경은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른다. 이 감독의 직책을 주께서 피로 사신 양떼를 치는 일이라고 한다(행 20:28). 그러나 장로의 직책은 실제로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이다. 이는 목사만의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언제나 능동적으로 교회에 봉사해야만 한다. 실제로 봉사하지 않는 직분이란 교회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감독으로서의 봉사를 실제로 할 수 없는 사람도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 있으면 장로로 세우며, 또 이런 분들이 직분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감독자로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혹은 어떤 다른 실리를 위해서 세우고,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자로 일괄 하신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다. 이 직분의 속화는 교회의 모습을 크게 변질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명예직은 없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던 그 일 때문에 교회의 감독자로

실제 봉사할 수 없는 분들은 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봉사케 하고, 교회의 직분은 침된 신앙을 가지고, 성실한 감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 구제의 직책을 맡는 집사

초대교회는 일찍부터 집사 직분을 세웠다. 사도행전 6장이 말하는 “일곱”은 학자에 따라 이론이 있으나 개혁주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집사로 생각한다(딤전 3:8-13 비교). ① 집사가 맡은 중요 직책은 기단 한 과부들을 물질적으로 돋고(구제),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다. 그러니 집사가 교회의 다른 일들을 봉사할 수 있을지라도 그 핵심되는 직책은 교회 공동체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돌보고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집자직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교회가 출석 장년 수의 1% 이상의 사람들을 집사로 임직하고 있는 듯하다. 어느 선교사가 한국의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라기보다는 집사 교회라고 하던 말을 기억한다. 이렇게 많은 집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 내에 구제할 대상이 많고 성실하게 구제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님은 풀을 필요가 없다.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이는 곧, 직분의 속화요 교회의 속화를 의미한다. 집사란 명예직명을 주므로 교회 봉사를 이끌어 내려 할 때, 개신교회가 강조하는 만인 제사장직의 교리가 될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직분의 성경적인 면모를 다시 찾으므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

### 갈등없는 목사, 장로 관계

목사와 장로는 그 직책이 다를 뿐 양자가 기본적으로 장로이다. 목사가 복음 설교의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장로들보다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딤전 5:17). 그러나 목사와 장로가 다 직위상으로는 평등하다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가 수세기 동안 이해해 온 성경적 직분관이다. 목사와 장로는 당회를 이루어 양무리를 치는 일에 공동적인 책임을 가진다. 그러기에 (목사 장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같은 종들이다. 이에 목사 장로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위한 동역자(co-workers)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당회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봉사함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목사와 장로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라고 들리고 있다. 이것은 개 교회 당회의 현실일 뿐 아니라, 전국적인 교회 차원에서의 현실이라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내에 깊은 골이 파여지고, 갈등과 분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슬픈 일이다. 먼저 목사와 장로는 당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의 소리로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야겠고 전국적으로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

### 지역교회 중심생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 이름들은 그 지역을 따라 불려지고 있다 (예비소, 서머나, 고린도 등). 이는 교회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행 17:26), 우리 개개인이 거주할 곳도 정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주 지역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에 가담하여 그 지역의 교회 건설에 이바지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교회생활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 혹은 목사의 강권을 받아 자기 거주 지역에서 먼 교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먼 거리에서 충실히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같은 교회에 참석하기도 어려우니,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한 가정의 신앙생활에도 조화를 잃게 된다. 이런 교회생활의 지도는 개인적,

교회적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욕을 떠나 전전한 주님의 교회 건설에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

### 하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다. 더욱이 같은 신앙고백을 가지고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은 교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모두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 교단 교회에 가담할 의무가 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를 권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생활이 조금도 정착되어 있지 않다. 한 도시에 100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들 모두가 전 도시를 교구로 삼고 교인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교회들은 대형 버스를 마련하고 주일이면 전 시내를 누빈다. 얼마나 큰 혼란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고전 14:40). 많은 신자들이 자기 교파 교회를 바로 문전에 두고 멀리 가게 되며 어느 때에는 수십 개의 자기 교파 교회들을 거쳐가기도 한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업화하고 있다는 말까지 많이 듣는다. 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 물질, 정력의 낭비인가?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같은 신앙고백을 하고 같은 교회의 공동체 속에 산다고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솔직하게 지나친 사욕을 버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생활지도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한 분 구주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해야 한다.(요 17:21)

### 한 몸 같은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다(고전 12:27). 이는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란 말이다. 몸은 하나인데 각양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갖고 있다. 이 모든 지체는 서로를 알고 도와감으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도 서로 알고 서로 의존하며 도와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산 교체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너무 커서는 불가능하다. 대형교회에서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는 공동체의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온 세계에 알려져 있다. 많은 목사들이 제일 큰 교회당을 짓고 가장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는 놀랄 만한 의욕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깊이 있는 교체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교회를 세우고, 나머지 힘을 이와 같은 교회들을 더욱 많이 세우는 데 기울임이 성경적이 아닐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다(요. 10: 14). 천 명 이상 수천 명의 교인을 가질 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며, 양들도 서로 서로를 알고 산 교체를 나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목사가 신자 개개인을 알고, 신자들도 목사를 알며, 모든 신자들이 서로를 알고 교체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산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 맺는말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따라 한국교회 생신의 길을 몇가지 제시해 보았다. 물론 교회 생신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교회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인간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왕이신 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교회 생신을 위한 봉사에 임할 때 그는 우리들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해 가실 것이다.)

## 도전받는 현대 교회

홍 반식 교수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 4세기 반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개신교 교회를 중심하여 생각할 때, 교회의 순결과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대 교회를 향하여 도전해 오고 있다.)

현대 개신교를 중심으로 신앙운동을 분석할 때, 대략 세 가지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음주의 운동

둘째, 불건전한 신앙 운동

셋째, 성경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 운동을 하려는 개혁주의 신앙 운동이다.)

### 1. 사회 복음주의 운동